

불자 세상보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 소장

최근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은 제국주의 시절 약탈되었던 자국의 문화재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진정한 문화재 환수운동은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알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실히 우리나라를 떠났던 것이다.

또한 문화재 환수운동의 당면성은 '문화민족주의'가 아니다. 민족주의로 접근하면 감정과 분쟁이 강조된다. 따라서 문화재환수운동은 '문화민주주의'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즉, 문화재는 원산지에 있어서 보호되고 활용되고, 약자와 소수자문화를 존중하고, 문화보편성이 강조되는 문화민주주의가 토대로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재환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매우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연대의 외교장각 환수운동과 일본으로 약탈당한 문화재 환수운동이며,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의 조선왕실의궤 환수 활동, 경기도 이전의 오쿠라재단 측과의 이전오충석탑 환수운동, 진주의 연지사종 반환운동 등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와 개인은 문화재 환수 운동을 개인의 영예나 포퓰리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으며 사적인 욕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반환, 대여, 인도... 무엇이 진실일까? 145년 전 병영지를 불법으로 이탈하여 수많은 조선의 양민을 학살하고, 조선의 국가 재산을 약탈했으나 결국 조선이 승리한 전쟁인 병인양요에서 패퇴한 프랑스 군대의 악랄한 행위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한국정부가 환영행사를 열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병인양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돌아오는 조선왕실의궤들도 "반환"이 아니라 "인도"이다. 즉 일본의 재산을 한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 간 합의문을 보면 합의가 아니라 제2의 병인양요라고 말하고 있다. 합의문 1조는 '5년 단위의 대여'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외교교통상부는 암묵적 영구 대여나 반환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서 보듯이 외교교통상부의 번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합의문의 불어본을 공개해 번역에 대한 검증권을 받아야 한다.

또,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약정서도 불어본과 번역본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일본과의 협정문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문화재환수 운동의 최대 수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환수운동을 하는 단체나 인사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공과 영예를 국가와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문화재환수 후 공을 내세우거나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문화재환수 운동은 매우 곤란해진다.

특히 환영준비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이점을 각성해야 한다. 문화재 환수 운동을 포퓰리즘이나 사적인 이기심의 표출로 이용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 정부는 굴욕적이고 자존심을 문개며 진정한 문화재 환수 운동을 묵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과 치루는 "그들만의 리그"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장각 문화재의 안전한 반환과 아직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반성을 통해 진정한 문화재 환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외교장각 문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고 환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재벌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는 "도서가 영원히 한국 땅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장기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요란한 환영 행사보다 문화재의 안전 반환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으로 5년, 10년 뒤를 대비해야 한다.

사부대중 갈럼



현희련 예코부터 팀장

오늘날 우리는 환경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상에 사는 전 생명이 공멸할 그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과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들조차도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닐까?

가까운 미래에 인류를 공멸의 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삶의 태도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바뀔 수 있고, 가치관을 바꾸려면 인성관과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환경운동은

오래된 새길, 미래문명을 열어갈 수행과 영성

단순한 여러 시민사회운동 가운데 한 영역이 아니고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근대문명, 어쩌면 더 이전부터 인류가 추구해왔던 인류문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운동은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문명전환운동, 또는 신문명운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환경적 가치가 개발정책을 입안할 때만 주 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윤리, 사회정의까지도 환경윤리에 토대를 두고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현대문명의 특징은 소비주의 문명이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이며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대량소비를 위해서는 대량생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량생산을 위해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성장이 조금이라도 멈추면, 국가나 사회나 인간의 삶이 큰 위협에 빠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량생산은 한정된 지구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대량소비를 불러오고, 대량소비는 결국 대량의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환

경오염이 지금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식품이 오염돼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잘 살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공멸의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소비중독현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처음에는 담배의 유해성을 모르고 피웠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도 멈출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각하는 사람이나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거대한 질주에서 한 발 벗어나면 마치 세상으로 부터 낙오되는 것 같기 때문에 개인, 사회, 국가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젊은 시절 세가 별례를 잡아먹고, 농부가 재물을 이용해서 소를 부리고, 관리가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죽어야 하며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불행해야 하며, 하나가 편리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불행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하나가 살기 위해 하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고 있는 이런 삶의 허구를 보고 결국 왕위를 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기존의 사회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그 길은 모든 존재가 개별 존재의 집합이 아니라 그 존재들이 서로 연관된 하나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다섯 개의 손가락이 하나의 손바닥에 연결돼 있듯이, 각각의 손가락이 모양도 다르고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만, 하나의 손바닥에 연관돼 있다고 하는 연기적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똑같이 보더라도 약육강식, 자연도태의 관점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에 진각히 바라보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을 전환해야 한다. 소비주의 문명, 거꾸로 된 이런 어리석은 문명, 이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야 한다. 오래된 옛날, 이미 부처님께서 열어보신 '오래된 새길'을 따라 인류문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인류에게 오래 기억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한다.

社說

낙단보 마애불서 시주함 치위야

낙단보 마애불에 시주함이 설치됐다고 한다. 예경을 위한 향로까지 놓여있었지만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시주함을 설치한 사찰에 철수를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사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알고 보니 사찰 간 갈등이 있었다.

처음 시주함이 설치된 것은 신도들이 마애불에 공양한 공양물의 관리가 어려워서라고 한다. 누군가 매일 같이 쌓이는 과일과 돈을 관리해야 했다는 것이다. 구미 대문사(주지 진오)가 나서 관리해 왔다. 그런데 마애불이 돈이 된다 싶었는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조계종의 한 교구본사가 관리를 지체했다. 주지님은 총무원장님과 같은 계급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단보 마애불에서 시주함은 철거되어야 한다. 굳이 종단 내 화합 등을 운운할 필요도 없다.

낙단보 마애불이 어떤 곳이던가? 4대 강 공사 중 발견된 그곳은 정부가 국민에게 숨기고 속이기를 반년여 끝에 지켜낸 곳이다. 조계종이 역량을 총결집해 진행 중인 민족문화유산운동의 단초가 됐던 곳이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으로 생명평화 운동의 성지(聖地)가 된 곳이다. 이런 마애불 앞에 놓인 시주함을 보면 고작 시주나 받으려고 지켜냈나 하는 오해를 사기 쉽다.

민족문화유산은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 각자가 민족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돈 때문에 민족문화유산운동의 진의가 왜곡·편되지는 안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다. 중요한 대입일수록 몸가짐 하나하나에도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부디 낙단보 마애불이 무위(無爲)의 상태로 보존되길 바란다.

숨은 불자교육인 발굴해야 한다

국내 사립학교 903개 법인 1668개교 가운데 불교교육연합회에 소속된 학교는 12개 법인 24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학교를 통해 불교적 사고를 갖고 배출되는 청소년 수도 적지만 교육인력 적어도 심각하다. 동국대 등을 통해 한해 배출되는 교법사는 10여 명, 그런데 일선 학교의 교법사 정원은 10년에 2-3명이 나올까 말까한다. 이런 가운데 불교교육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재단 중 이사가 스님이거나 신심 깊은 불자인 학교가 수십 곳으로 추산된다. 반기문(?) 소식이 들린다.

이학승 불교교육연합회 상임부회장이(의정부 광동교 교장)는 6월 17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종립학교 교육포럼에서 "많은 스님·불자들이 사립학교를 경영함에도 학교교육에서 불교

정신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웃종교의 경우, 단 한 명이라도 이사 등으로 학교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종교의 교육이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새 법인을 세우고 새 학교를 짓기에 앞서 기존의 법인·학교에서 불자를 찾아내야 한다. 사립학교 가운데 불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학교를 발굴해 불교교육에 동참시키는 것은 사금을 캐는 것과 같다.

이들 숨은 불교교육인을 발굴하려면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들이 불자임을 밝히는 이유로 (숨은 누군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다면, 어느 대학에서 열린 불교종립학교 교육포럼에서 "많은 스님·불자들이 사립학교를 경영함에도 학교교육에서 불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이시울 현물닷컴 실시간 뉴스 현물뉴스 불교포탈 부디닷컴 소형물 현물닷컴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행 요강을 준수한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아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인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나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응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번지 금강리빙스텔 325호 (지하철 6호선 봉곡산역) 휴대폰 010-9217-2237